
지금 시작하는 너희에게



‘불수능’ 2026 수능 국어를 나와 함께 봐보자

- ‘불수능’이라던 2026년 국어 영역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설이 아예 없었다.
- 종평, 날림 해설말고 여러분이 보았던 시험지를 다시 뜯어보자.
- 왜 어려웠고 힘들었는지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수능 국어의 승자가 되리라.



CONTENTS

	시작하는 말	p.3
	2026 수능 독서 영역 [1~3] 독서론, [4~9] 법, [10~13] 과학, [14~17] 철학	p.9
	2026 수능 문학 영역 [18~21] 고전 산문, [22~26] 현대 시, 수필 (갈래 복합) [27~30] 현대 소설, [31~34] 고전 시가	p.64
	마무리 하며	p.118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존댓말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글의 길이와 보다 자연스러운 전개를 위해 아래 내용부터는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고 서술하려 합니다.
여러분을 존중하는 마음은 가득 담아 글을 이어갈 테니,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N수생들에게는 2026학년도 수능을 치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한다. 인생에서 큰 도전을 경험했다는 것만으로도 너에게 멋진 추억이 남았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마음에 드는 결과를 받은 이들도, 후회가 남는 이들도 있다는 것 역시 잘 안다. 모든 도전에는 희열을 느끼는 이가 있는 반면, 남몰래 쓰디쓴 눈물을 삼키는 이도 있기 마련이다. 나 역시 인생에서 그런 경험을 숱하게 겪어 왔기에, 축하와 격려를 동시에 보내고 싶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앞둔 고3 수험생들에게는 용기를 주고 싶다. 인생을 살다보면 크고작은 도전들이 반복된다. 어쩌면 처음 맞이하는 인생의 ‘큰 도전’ 앞에서 부푼 기대와 떨림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과 막막함도 공존할 것이다. 무엇이든 좋다. 진지한 자세로 도전에 임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해도 좋다. 무수한 시행착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씩 이겨내다보면 짜릿한 희열을 느낄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

짧게 내 소개를 하자면, 나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서른여덟 살 아저씨다. 요즘 ‘영포티’라는 말이 있던데, 나는 ‘포티’도 아직 아닐뿐더러 아집에 사로잡혀 눈과 귀를 닫고 사는 사람도 아니니 걱정하지 않기를 바란다.

졸업 전에는 생활비와 학비를 위해 국어 강사 일을 열심히 했었다. 그 후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지상파 방송국 공채 PD로 합격했고, 만 10년을 채워 일하다가 유학을 꿈꾸며 직장을 그만두었다. 국어 강사로 일했던 3년의 경험이 워낙 강렬했기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수능 국어에 대한 연구를 취미처럼 해 왔다. 그런 나를 보고 직장 선배, 대학 동기들은 종종 의아해했다. 하지만 내게는 그들의 골프, 해외여행, 쇼핑이 바로 ‘수능 국어 연구’였다.

내 인생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을 생각은 없다. 별로 관심 두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 ‘당신이 누구인데 이런 글을 쓰지?’ 하고 궁금해할 독자들을 위해 짧게 적어본 것뿐이다.

이 글을 정성 들여 읽어준다면 내겐 행복한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힘들이지 않고

[3] 이를 바탕으로 단순 관점은 독자 유형을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해독과 언어 이해가 모두 충분한 독자, 해독과 언어 이해가 모두 부족한 독자, 언어 이해는 충분하지만 해독은 부족한 독자, 해독은 충분하지만 언어 이해는 부족한 독자이다. 단순 관점에 따르면 해독과 언어 이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한 독자는 독해에 어려움을 겪으며, 능숙한 독해 수준에 도달하기도 힘들다. 가령, 단어 인식은 잘하지만 글의 중심 내용은 파악 하지 못하는 학생은, 해독은 충분하지만 언어 이해가 부족한 독자 유형에 해당하며 능숙한 독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첫 문장부터 무언가를 ‘구분’, 즉 ‘분류’한다고 알려줬다. 글이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이 느껴진다. 다음 내용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집중할 부분을 미리 일러주고 넘어가고 있다.

뒤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설명했던 ‘해독’과 ‘언어 이해’를 중심으로 분류를 하고 있을 뿐, 새로운 개념을 꺼내들지 않았다. 즉, 소재의 ‘밀도’가 높지 않은 점을 볼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독서론’이 쉬운 지문인 이유를 면밀히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철학이나 법, 경제, 과학 기술 지문들도 쉬운 지문처럼 읽도록 훈련해야 한다.

‘구분’한다고 했으니 ‘구분’을 해보자.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뒤의 내용을 쭉 읽어보자. ‘충분’과 ‘부족’을 상태 값으로 두고 ‘해독’과 ‘언어 이해’를 대상으로 두고 있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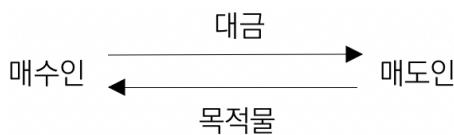
앞으로 여러분이 기출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설명 내용이 눈에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상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보자. ‘충분’ 상태를 O로 두고 ‘부족’ 상태를 X라고 단순화하고 대상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자. 문장을 따라가면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다.

	해독	언어이해
1)	O	O
2)	X	X
3)	X	O
4)	O	X

*1)번 제외한 나머지: 독해 어려움, 독해 수준 X

1)부터 4)까지의 분류는 글의 분류 순서에 따라 알아보기 쉽게 내가 적은 것이다. 실제 글에서도 이렇게 순서대로 분류해 두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독과 언어 이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한 독자는 능숙한 독해 수준에 도달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이것을 단순화

매매 계약 (유상 계약)



If 계약 당시부터 있던 하자, '대금' 값어치 못함 ▶ 담보책임 O(매도인)

- 1) 원칙: 매수인 손해 배상 청구 O
- 2) 매수인이 계약 목적 달성 X: 계약파기 O, 대금 환불 청구 O

If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를 인지 O ▶ 담보책임 X(매도인)

나만의 문장으로 바꿔보는 ‘단순화’ 후 ‘표상화’의 결과를 먼저 보여준 이유는 ‘표상화’의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랐기 때문이다. 위의 ‘표상화’ 결과가 문단에 대한 이해로 와닿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나만의 문장으로 만드는 ‘단순화’를 하고 ‘표상화’를 했는데도 ‘텍스트’ 뎅어리들이다. 옳지 않다.

독서에서 제일 기본은 ‘이해’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이해’에 충실해야 한다. ‘표상화’는 이해를 위한 ‘틀’을 머릿속에 그리는 모든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그 ‘틀’은 표나 화살표, 텍스트가 아니어도 된다. 이해를 하기 위해 그릴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만의 예시를 틀로 삼아 이해를 충분히 하며 읽어갈 수 있으면 그것이 ‘표상화’다. 머릿속에 예시 상황을 그려보자. 한 번 해볼까?

여러분이 쇼핑몰에서 ‘목적물’인 운동화를 샀다고 가정하자.

한 20만 원 정도 ‘대금’을 주고 샀다고 하자.

택배가 도착했다.

택배를 열어보니 운동화 앞부분에 크기가 큰 스크래치, 즉 ‘하자’가 있는 것이다.

이럴 때 여러분은 쇼핑몰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마 쇼핑몰은 ‘5만 원 할인 쿠폰’을 지급해 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스크래치 수준이 아니라 아예 운동화 안쪽까지 뚫려 있는 수준이라면,

여러분이 운동화를 신고 외출을 하려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쇼핑몰에 ‘계약을 파기’하고 ‘대금’ 20만 원을 ‘환불 청구’할 수 있다.

‘쇼핑몰에서 운동화 살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계약은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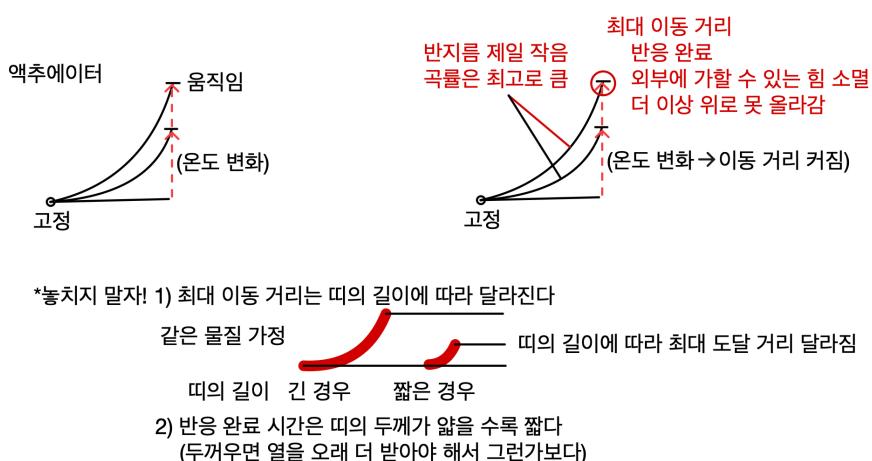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결제를 함과 동시에 계약이 성립되는 것과 같은 경우도 존재한다.

두 문단이 지문에서 준 <그림>을 통해 한 번에 뚫였다. 그 설명을 나만의 방식대로 이미지화해서 이해했다. 지문에서 이해를 위한 <그림>을 줬기에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 주어진 지문의 <그림>이 매우 작아 시험지 위쪽 ‘국어 영역’ 글자 왼편에 저렇게 그림을 다시 그리고 텍스트도 짤막하게 적으며 이해했다. (물론 저런 식으로 문장 전체를 쓰지 않았다. 예를 들면 ‘반지름’은 ‘r’로 썼고, ‘크다’ 또는 ‘작다’도 ‘大’, ‘小’ 이렇게 한자로 짧게 적었다.)

글을 따라 읽으면서 그려다 보니 저렇게 긴 두 개의 문단이 이미지화로 쉽게 이해됐다.

[4] 띠의 한쪽 끝을 고정하고 열을 가하면 띠가 휘면서 반대쪽 끝이 움직이는 액추에이터가 된다. 액추에이터란 열에너지 등을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액추에이터의 설계에는 최대 이동 거리, 띠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 반응 완료 시간 등이 고려된다.

[5] 띠가 훨수록 고정되지 않은 끝의 이동 거리는 커진다. 최대 이동 거리는 힘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어진 온도 변화량에서 띠의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다. 이 값은 띠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띠가 휘면서 띠의 끝이 외부에 힘을 가할 수 있는데, 이 힘은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여 힘이 완료되었을 때 소멸된다. 따라서 띠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은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했을 때이고, 이는 띠가 휘는 과정에서 최대의 곡률에 도달했을 때와 같다. 반응 완료 시간 또한 고려해야 하는데, 반응 완료 시간은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 까지의 시간이고,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짧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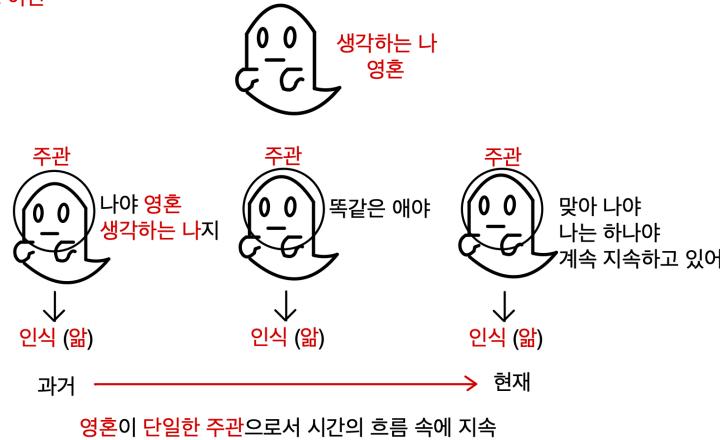


액추에이터설명 부분도 역시 이미지화하면서 설명했다. ‘한쪽 끝을 고정...’부터 이미지화를 시작하여 반대쪽이 움직이는 액추에이터를 가상으로 그려봤다. 실제 액추에이터가 저렇게 생기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해를 위해 저런 형태로 그렸다.

그리고 반응 완료가 되면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흡 소멸도 그림을 그리며 이해했다. 한 없

인격의 동일성을 어떻게 설명할까?

칸트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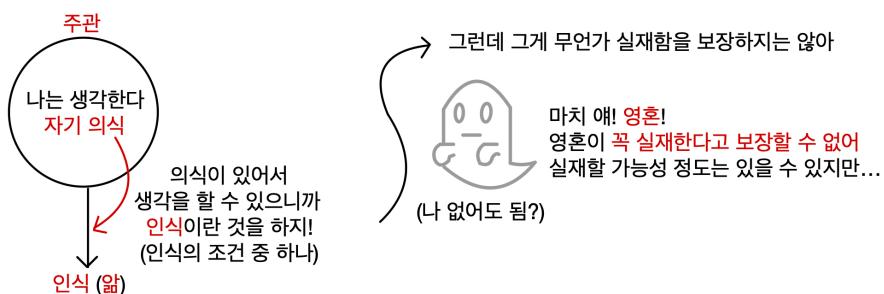
나는 머릿속에 실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며 이해했다. 수능에서 철학 지문은 부연 설명도 삭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주제 특성상 **형이상학적인 내용**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각종 '**표상화**' 방법을 사용하며 이해를 붙여 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실제로 나도 영혼의 **대사**까지 떠올려가며 이해했다는 점을 밝힌다. 그만큼 **필사적이었다**.

[2] 그러나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 즉 '자기의식'은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한 조건 자체는 무언가가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자기의식은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즉 '영혼의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고,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을 열어둘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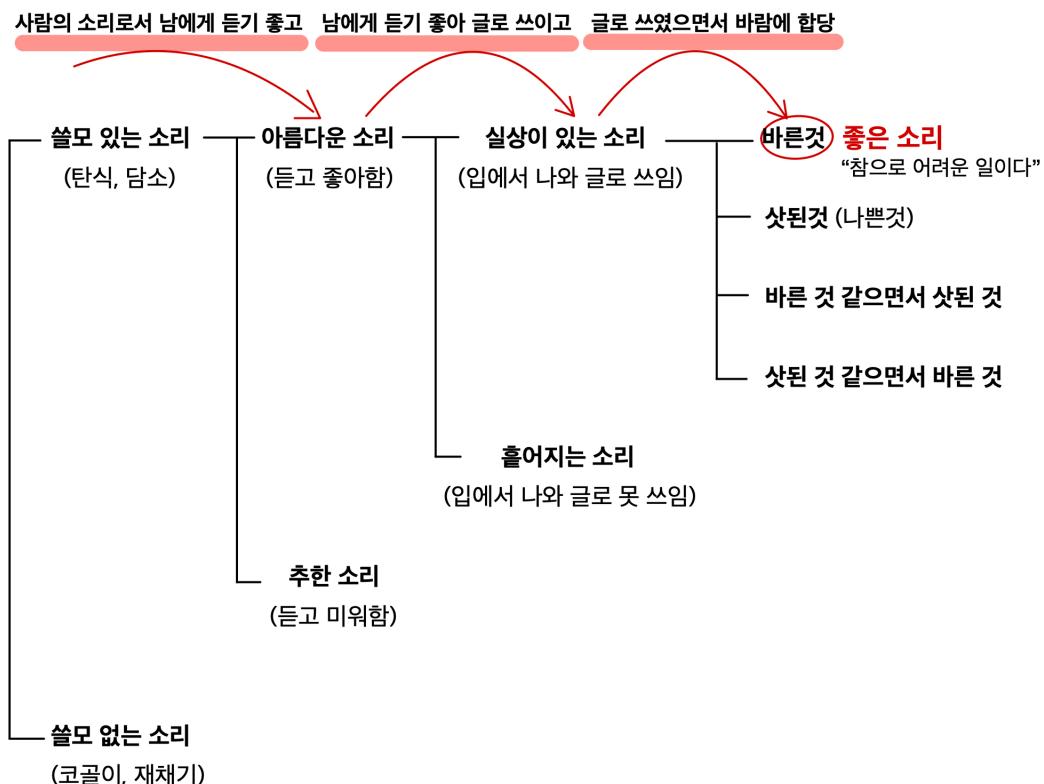
앞서 영혼을 그려 넣으며 표상화했던 '주관'을 다시 가지고 와서 **칸트의 입장**을 다시 표상화 했다. 우리는 입장별로 차이를 반드시 붙잡고 비교해 가며 읽어야 한다. '칸트'는 '영혼'이란 것이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칸트 이전'은 '영혼 = 생각하는 나'가 단일 주관, 즉 **하나만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영혼'의 **존재 유무**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는 점만 이해해도 충분하다.

아래는 내가 했던 표상화의 결과다.

칸트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를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나는 문제를 풀 때 읽어 가면서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면서 분류했다. 그리고 끝에는 앞선 문단처럼 무언가 **최립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읽었다. 독서 영역처럼 **표상화**를 해 보면 아래처럼 해볼 수 있다.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이가 최립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좋은 소리**’를 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알려 주고 싶었던 것이다.

최립은 좋은 소리를 내는 사람에 가깝다. 그의 문장이 비록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뜻은 바름을 향한다. 그러니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바르게 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내가 들으니 소리를 내는 만물은 그 본체가 크면 그 소리 또한 크고, 그 본체가 작으면 그 소리 또한 작다고 한다. 최립은 소리가 크니 그 본체가 큰 것을 알 만하다. 사람의 본체는 마음이니 그의 마음이 가히 크다고 하겠다. 내가 또 들으니 크게 부딪치면 큰 소리가 나며, 작게 부딪치면 작은 소리가 난다고 한다. 큰 바람이 초목을 움직이면 천지를 뒤흔들 듯하나, 작은 바람이 불면 한 번 살랑거림에 불과할 뿐이다. 금석을 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사람의 소리는 기가 크면 그 소리가 크게 나고 기가 작으면 그 소리가 작게 나니, 최립의 기는 가히 크다고 하겠다.

〈보기〉

잇글에서 서술자는 부정적 인물인 허명두에게 초점화하여 그의 내면을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허명두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일반화하거나, 주어진 상황을 주관화하거나, 상대의 생각을 헤아리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인물의 생각을 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어, 서술의 이면에 그 부정성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이 함께 있음을 보여 준다.

서술자는 부정적 인물인 허명두에게 초점화하여 그의 내면을 서술했다고 한다. 허명두가 ‘부정적 인물’임을 알려줬고, 앞서 우리가 공부했듯 이 소설은 허명두에게 초점을 맞춘 ‘3인칭 제한적 시점’임을 알려줬다.

이러한 3인칭 제한적 시점을 통해

1. 허명두 본인의 생각이나 경험을 일반화하고,
2. 주어진 상황을 주관화하거나
3. 상대의 생각을 헤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기〉는 말했다.

즉 ‘서술의 방식’을 나열했다. 각 항목을 체크하고 떠올려 보자.

1. 허명두 본인의 생각이나 경험을 일반화

- 허명두가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해 온 측이 항상 이겨왔다고 생각한 부분을 말하는 것 같다.

2. 주어진 상황을 주관화

- 온 씨의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날 뛰던 시대는 서서히 지나가고 있다.”는 말에 허명두가 그것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지나간 게 아니라고 생각한 부분을 말하는 것 같다.

3. 상대의 생각을 헤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 온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고 생각한 부분을 말하는 것 같다

명심하자. 〈보기〉 분석은 줄글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다. 〈보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감상한 작품 내에서 기억을 꺼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1. 서술자는 허명두의 생각을 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2.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설 속 상황을 허명두 본인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려는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어 허명두의 부정성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한다.

③ (다)에서 연이 '솟아올라 구름'에 걸치는 것을 보고 화자가 연줄의 힘을 빌려 '먼 데 임'에 게 가려고 하는 것은 대상의 역동성이 화자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보여 주는군.

- 많은 학생들이 ③번 선택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지화'를 통해 '내면세계를 파악'했다. 지금 (다)의 화자는 연줄의 힘을 빌려 먼 데 임에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 데 임을 본인이 있는 곳으로 낚아 오고 싶어하는 것이다. 마치 낚시 하듯 연줄의 힘을 빌려 낚아 오고 싶어 한다. 이러한 소망을 하는 화자의 내면세계를 파악했다. 우리는 선택지 앞쪽을 보자마자 틀린 내용임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④ (가)에서 '가슴에 열'이 나서 '냉수'를 먹는 행위는 임무 수행에서 느낄 수 있는 고충을 드러내고, (나)에서 근심을 '세세히 적'는 행위는 문제 해소를 원하는 화자의 마음을 보여 주는군.

- 맞는 내용이다. 가슴에 열이 난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감정을 떠올릴 수 있다. 그래서 더운 방에 들어와도 '냉수'를 마시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화자가 암행어사로서의 임무 수행에서 얼마나 고충이 많은지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나)에서 화자가 방패연에 근심을 세세히 적는 행위는 그 방패연을 멀리 날려 보냄으로써 문제 해소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⑤ (나)는 연이 '굼틀뒤를 뒤틀어져' 올라가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여, (다)는 연의 재료를 '강원도 설화지'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크기'까지 언급함으로써 대상 자체를 부각하는군.

- (나)에서 '굼틀뒤를 뒤틀어져'라는 의태어를 통해 방패연이 솟아 올라가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했다. 또한 (다)에서 '강원도 설화지'라는 재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제크기'라고까지 언급함으로써 '연'이라는 대상 자체를 부각하고 있다. 맞는 내용이다.

정답 ③번

어떤가? 학생들이 처음에는 고전 문학을 어렵게 생각한다. 일단 현대 문학과 다르게 생소한 단어들이 많고, 때때로 옛말이 많이 있어서 읽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전 문학을 많이 접할수록 학생들은 고전 문학을 좋아하고 쉬워한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이미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경험이 누적되고, 현대 문학과 다르게 파악해야 하는 내면세계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기출 분석이든 EBS든, 사설 교재든 어떤 것도 좋으니 고전 문학을 많이 읽고 풀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다른 영역보다도 점수를 크게 향상시키기 좋은 영역이기 때문이다. 고전 문학은 국어 영역의 자신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공략해야 하는 영역이다.